

한마음된 익산 베이커리 업계

대한제과협회 익산지부

한 단체가 건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한 때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제과협회 익산지부를 재결성해 지역 제과업계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익산지부 운영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히 냉각된 익산지역 경기가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던 지부는 지난 3년 전부터 사무실이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의식있는 제과인들 사이에서 “다시 협회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제과점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생겨도 대변해 줄 마땅한 단체가 없어 이러한 의견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사무실과 집기만 남은 채 유명무실하게 된 익산지부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제과인 가운데 한사람인 운영활 지부장은 자신의 점포 운영도 뒤로 하고 지역 업계 발전을 위해 뛰었다. 익산지부는 협회 재건을 위해 지부장을 비롯해 부지부장과 이사들이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활동은 곧 익산 베이커리 업계에 발빠르게 소문이 나서 하나 둘 협회 재건을 위해 제과인들이 뭉치게 됐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협회 운영 인력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사무실과 집기류가 온전히 남아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재구성하면서 지부 사무실을 현재의 위치로 옮기고 기존 사무 집기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제과협회 익산지부는 다시 창립하면서 제일 먼저 지역 제과인들의 결속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같은 활동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의 익산지부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의 운영이 녹록치만은 않다.

“지부를 꾸려가지 위해 사방으로 뛰면서 몇 달이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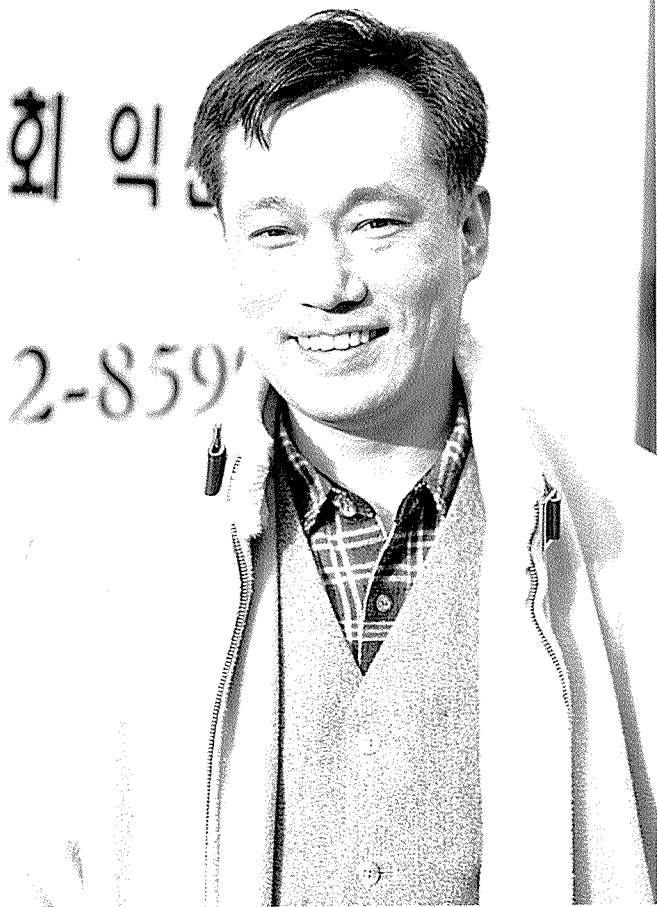


▲ 익산지부를 이끄는 일꾼들(왼쪽부터 김명선 사무장, 임선희 이사, 이명래 부지부장, 운영활 지부장)

“이제는 제과인들의 자기 계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예전과 같은 제품과 기존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는 급변하는데 반해 많은 제과인들이 관련 기술서적 하나 사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주나 종업원 모두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지부 운영활지부장은 지난해 3월 해체상태에 있던 익산지부를 뜻있는 지역 제과인들의 협조를 얻어 재구성했다. 지부가 다시 결성되기 전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뭉쳐야 산다는 신념아래 불굴의 의지로 일을 추진한 결과 다시 어엿한 지부로 태어나게 됐다.

원래 익산지부는 운영이 원만했었지만 IMF 이후 급속



▲ 운영할 지부장은 지역 제과업계의 든든한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자 과연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주위 이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지부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익산지부가 재결성 됐다고는 하지만 지부가 운영되지 않았던 3년간의 공백은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한 때 그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 됐던 지부였지만 다시 회원들을 화합시킨다는 게 힘든 일이었다. 또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와 쌓인 양금을 정리한다는 것은 짧은 시일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는 회원들이 모여 구성되는 단체인 만큼 회원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선 특별한 구심점이 필요했다. 일부 타 지역 지부의 경우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회원들을 위한 재료 구매와 대출 사업을 하고 있어 회원들이 모일 수밖에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익산지부 역시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베이커리는 무엇보다 먹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따른 제품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익산지역의 제과인 상당수가 경력만 오래되면 상급 기술인이라고 생각해 진정한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움에 대한 욕구가 적은 것이 문제지만 향후에는 기술 세미나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운영할지부장은 할인점과 패스트푸드, 팬시점 등의 시장 잠식에 맞서 제과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신하는 길만이 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급한 불을 끄고 체제를 정비해 가는 지부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닦은 상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라는 말처럼 장기적인 계획 아래 발빠른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 지부 임원진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제반 여건이 허락된다면 공동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기획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급변하더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차분히 대처해 나간다면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노력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 제과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비단 익산지부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다. 현재와 같이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도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무언가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익산지부의 경우처럼 작은 힘이지만 제과인들이 서로 뭉칠 때 하나의 큰 조류를 형성해 제과점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글·사진 / 정한상 jeong@mbakery.co.kr〉